

『근대 신학의 정수』에 나타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한 해석

강효주

(진주화평교회, 교회사)

- I. 서론
- II. 역사적 배경
- III. 구원의 확신 교리
- IV. 결론

[초록]

이 논문은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 신학의 정수』를 18세기 초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년)에 근거하여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저서라고 정죄한 판결이 과연 신앙고백서를 올바르게 해석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인지를 연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채택한 접근법은 먼저 신율법주의의 풍조를 피하여 구원의 확신 교리를 성경적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던 토머스 보스틴과 그의 동료들이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 신학의 정수』의 내용을 신앙고백서의 관련된 부분과 비교하며 마로우 논쟁에서 대립되었던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제안한다. 또한 피셔와 보스틴이 동의하였던 존 칼빈의 입장, 즉 확신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교리가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대치되는 것인지 점검한다. 결론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판단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셔와 보스틴은 도덕률 폐기론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반대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의견만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과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신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두 가지 오류들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키워드: 구원의 확신, 마로우 논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에드워드 피셔, 토머스 보스틴, 존 칼빈

1. 서론

학자들 사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의 역사적, 신학적인 연속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칼빈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essence)”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¹ 『근대 신학의 정수』의 저자인 에드워드 피셔(Edward Fisher)와 18세기의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토머스 보스턴(Thomas Boston)은 신앙고백서를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²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 자신의 회심과 믿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그들의 신학에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³ 로버트 다브니(Robert Lewis Dabney)도 “칼빈이 표현한 믿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실천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⁴ 또한 다브니는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라면, 신자들은 자신이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신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⁵ 도널드 맥클라우드(Donald Macleod)는 만약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이 옳다면, “자신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⁶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입장과 차이를 두었고, 그들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믿는다.

1 James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 Outline of Its History in the Church and of Its Exposition from Scripture*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4), 377.

2 피셔와 보스턴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입장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 William Cunningh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7), 113.

4 Robert Lewis Dabney,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5), 703.

5 Dabney, *Systematic Theology*, 704.

6 Donald MacLeod, *A Faith to Live by: Christian Teaching That Makes a Differenc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1998), 157.

사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관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그 이후 신학자들의 입장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는 18세기 초에 있었던 마로우 논쟁에서 이미 토론되었던 내용이다.⁷ 그 당시에 『근대 신학의 정수』의 저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을 취하였다가 도덕률 폐기론자로 여김을 당하였다.⁸ 그 책의 저자였던 에드워드 피셔는 여기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와 존 코튼(John Cotton)을 포함한 64명의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 책에서 피셔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목회자와 새신자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두 명의 신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은 18세기 초의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화두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피셔의 저서를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정죄하였고, 이에 반하여 토머스 보스턴을 비롯한 몇몇의 목회자들은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총회와 논쟁을 벌였다. 아래의 두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생각할 때, 『근대 신학의 정수』의 내용이 도덕률 폐기론으로 치우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은 『근대 신학의 정수』를 대변하였던 보스턴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초칼빈주의(hyper-Calvinism)과 율법주의 및 예비주의

7 구원의 확신에 관한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논문에서는 “마로우 논쟁”에서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신학의 정수』의 내용을 다루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집중할 것이고, 칼빈과 칼빈 이후의 신학자들의 세부적인 입장은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8 David R. Como, *Blown by the Spirit: Puritanism and the Emergence of an Antinomian Underground in Pre-Civil-War Engla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4: “Despite his claims to be piously threshing out a pathway between extremes of antinomianism and legalism, Fisher’s critics in both seventeenth-century England and eighteenth-century Scotland argued that his treatment of the subject was far from impartial, and that in fact his irenic pose served merely to camouflage his antinomian sympathies.”; John V. Fesko,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286.

(preparationism)가 유행하던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보스톤은 『근대 신학의 정수』를 통해 큰 유익을 얻었던 심프린(Simprin)이라는 지역의 목회자였다.⁹ 보스톤은 피셔의 책을 다른 동료 목회자들과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근거로 설교하면서 소위 “마로우 논쟁(Marrow Controversy)”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총회와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가 변호하였던 『근대 신학의 정수』가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대치된다고 정죄를 당했지만, 두 권 상당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해설』을 출판했던 보스톤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에 익숙하였다.¹⁰ 그래서 “마로우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총회의 주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언급하며 논쟁하였다. 마로우 논쟁이 끝난 이후에도 보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분립과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¹¹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총회가 정죄하였기 때문에 『근대 신학의 정수』는 도덕률 폐기론자의 저서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근대 신학의 정수』가 도덕률 폐기론을 담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역사적 근거는 1627년부터 1655년 사이에 활동했던 에드워드 피셔의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는데 취합되었다는 것이다.¹² 차드 반

9 William VanDoodewaard, “토머스 보스톤의 생애와 사역(The Life and Ministry of Thomas Boston),” 허동원 역, 진리의 깃발사 매거진 156, no. April (2019), 30: “예비주의(Preparationism)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비된 자들(the prepared)에게만 주어지는 분 이시며, 예비된 자들은 정죄의 경험을 통해 선택받았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10 Thomas Boston, *An Illustration of the Doctrin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ith Respect to Faith and Practice, upon the Plan of the Assembly's Shorter Catechism,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Edinburgh: Printed for F. Ogle, 1813); Thomas Boston, *Commentary on the Shorter Catechism* (Edmonton, AB Canada: Still Waters Revival Books, 1993); Thomas Boston,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해설1』, 장호준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1 보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윌리엄 반두데워드의 저서를 참고하라. William VanDoodewaard, *The Marrow Controversy and Seceder Tradition*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1).

12 John Fesko,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윤수신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55; J. V.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Historical Context and Theological Insight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4);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페스코는 워필드의 'Westminster Assembly

딕슨(Chad Van Dixhoorn)은 피셔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셔는 분명히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덕률 폐기론을 비판하기 위해 그의 저서를 수정하였을 것이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과 17세기 초의 청교도들의 글들을 그의 저서에 인용하였던 피셔는 저서의 시작부분에서 존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나 에드워드 레이놀즈(Edward Reynolds)와 같이 총회에서 '도덕률 폐기론'을 반대하는 위원회의 회원들의 글을 상당량 인용하였다. 게다가 피셔는 당시에 도덕률 폐기론을 반대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프란시스 라우즈(Francis Rous)를 인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셔는 1645년판에서는 마지막에 존 이튼(John Eaton)과 토비아스 크리습(Tobias Crispe)과 같이 그 당시 도덕률 폐기론자로 여겨졌던 이들을 인용하였으나, 1646년판에서는 지혜롭게 그 인용문들을 지우고 그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구성원들을 인용하여 첨삭하였다.¹³

반 딕슨이 언급했듯이, 당시 총대들이었던 제레미야 버러스(Jeremiah

and its Work'를 참고해서 자신의 의견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다.

- 13 Chad van Dixhoor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or Twisse: Predestination and Politics in the Westminster Assembly's Debate over Justificatio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40.2 (2009), 415 n.94: "It seems to me that Fisher almost certainly knew of some members of the assembly's committee for the examination of antinomians and its activities and appears to have tailored his work to avoid their censure. Quite overwhelming the customary references to Protestant Reformers and the puritan authors of the previous decades, Fisher's opening pages wedge in an unusual number of citations of authors who are members of the assembly's antinomianism committee, such as John Lightfoot and Edward Reynolds. Furthermore, he cites only one author who is a member of Parliament, Francis Rous... who is also the only member of Parliament to bring accusations against antinomians... Fisher delicately laces one or two pages with references to the accused antinomians John Eaton (1574/5 - 1630/31) and Tobias Crispe (1600-1643) only at the close of the 1645 edition of the Marrow. He wisely deletes all reference to them in his 1646 edition, replacing that portion of the dialogue with a lengthy monologu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quotations from Westminster divines."

Burroughs)와 조셉 카릴(Joseph Caryl)은 에드워드 피셔의 책을 추천할 정도로 피셔는 총회와 관련이 깊었다.¹⁴

위의 두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근대 신학의 정수』의 저자가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을 거부하고 도덕률 폐기론의 입장을 취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를 역사적,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먼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되었던 17세기 중반에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율법과 복음에 관한 논쟁과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마로우 논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신학의 정수』로 인해서 마로우 논쟁에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언급할 것이다. 세번째로 “구원의 확신” 교리와 관련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근대신학의 정수』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 후, 과연 그 책의 저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 개혁자 칼빈의 입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과 충돌하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토머스 보스틴과 총회의 다른 의견을 가졌던 신학자들이 마로우 논쟁에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에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II. 역사적 배경

1.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도덕률 폐기론 논쟁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는 1640년도에 확산되었던 분파주의(sectarianism)와 반율법주의(antinomianism)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¹⁵ 1647년에 출판된 *Aphorisms of Justification*에서 박스터는 반율법주의를

¹⁴ Dixhoor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or Twisse’, 415.

¹⁵ Garry J. Williams, ‘The Definite Intent of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 in *From Heaven He Came and Sought Her: Definite Atonement in Historical,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Perspective*, eds. David Gibson and Jonathan Gibson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3), 209.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⁶ 박스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은 그가 깨뜨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고 가르치며, 복음은 새로운 행위의 율법이고, 믿음과 회개로 죄인의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다.¹⁷ 특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의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셨고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청하는 복음의 율법을 주셨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박스터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움보다 신자의 칭의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⁸ 스코틀랜드의 자유대학(Free Church of Scotland College)의 학장이었던 존 맥클라우드(John MacLeod)는 박스터의 신율법주의(Neonomianism)의 오류에 대해서 박스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특별한 언약적인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구별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하였다.¹⁹ 다시 말하면, 박스터와 신율법주의자들은 복음과 율법의 구별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벌코프는 신율법주의를 “은혜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으로 바꾸어 버린”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표현하였다.²⁰

한편,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 동안에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저서들이 언급된 청원서가 총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청원서를

16 Richard Baxter, *Aphorisms of Justification, With Their Explication Annexed Wherein Also Is Opened the Nature of Covenants, Satisfaction, Righteousnesse, Faith, Works, &c.* (London: Printed for Francis Tyton, 1649); John J.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WC, Preaching and Revival*, 1984, 42.

17 Dixhoor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tor Twisse', 405; 그 당시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이러한 박스터의 입장을 은혜의 언약에 새로운 '행위'의 요소를 추가한 율법주의의 한 형태로 보았고, 믿음에 관한 알미니안 입장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18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37), 192.

19 John Macleod, *Scottish Theology in Relation to Church History Since the Reformation* (Edinburgh: The Knox Press, 1943), 134: "They failed to take in the meaning or the val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aw of God in its special Covenant form and in its form of a preceptive index to the will of God bearing upon man's obedience."

20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192.

작성한 사람들은 도덕법 폐기론자들이 “머지않아 수많은 심령을 끌어들이어서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내팽개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신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존 솔트마쉬(John Saltmarsh), 존 이튼(John Eaton), 그리고 토비아스 크리스프(Tobias Crisp)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신자에게 삶의 규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²²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도덕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했다.²³ 예를 들면, 존 이튼은 그의 저서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칭의이다”라고 말했다.²⁴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이러한 칭의의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곤 했다. “이제 신자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노력은 행위로 인해 얻는 의로움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 불충분했던 것처럼 여기고 자기 의로움을 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²⁵

21 Fesko,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4; 그 청원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권의 책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존 이튼의 ‘The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 by Christ Alone’, 토미아스 크리스프의 ‘Christ Alone Exalted’, 존 이튼의 ‘The Discovery of the Most Dangerous Dead Faith’, 무명 작가의 ‘A Sermon upon Rev. 3:18’이 언급되었다. John Eaton, *The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 by Christ Alone* (London: R. B. at the Charge of Robert Lancaster, 1642); Tobias Crisp, *Christ Alone Exalted in Fifty-Two Sermons on Several Select Texts of Scripture* (London: Printed for and sold by G. Keith, 1755); John Eaton, *The Discovery of the Most Dangerous Dead Faith* (London: Printed by J. Hart and by Stephen Dixon at Barton, in Leicestershire, 1747).

22 Joel R. Beeke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Grand Rapids, Michigan: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324; 마크 존스는 영국의 반율법주의자들을 정통 개혁 신학과 구별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율법이 신자를 위한 삶의 규범임을 거절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23 페스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5.

24 Eaton, *The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 by Christ Alone*, 32: “By imputing unto us his Sonnes righteousness, he utterly abolisheth from before himselfe all our sinnes, and freely makes us passively just and righteous: which serveth to make us truly and in very deed perfectly just and righteous in God’s own eyes: and this is called Justification.”

25 G. C. Berkouwer, *Faith and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근대신학의 정수』의 저자 에드워드 피셔는 신율법주의자들과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분쟁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약 18-20년 전부터 이러한 논쟁이 있었고, 3-4년 전부터 부쩍 설교와 글과 토론을 통해서 그 두 그룹의 목회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²⁶ 코모의 연구에 의하면, 피셔가 말한 18-20년 전의 논쟁은 은혜와 도덕법에 관한 토론이 있었던 1625-1627년의 일을 의미한다. 1640년도에는 크리스프(Crisp), 델(Dell), 솔트마쉬(Saltmarsh), 엘버리(Erbury)와 같은 신학자들이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했고, 토마스 에드워즈(Thomas Edwards)와 존 비칼스(John Vicars), 그리고 헨리 벌튼(Henry Burton)은 그 반대 편에서 신율법주의를 주장했었다.²⁷

2. 에드워드 피셔와 『근대신학의 정수』

이와 같은 치열한 논쟁 속에서 에드워드 피셔는 초반에는 존 이튼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 윌리엄 반두데워드(William VanDoodewaard)의 연구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회원이었던 제레미야 버러스(Jeremiah Burroughs)나 윌리엄 스트롱(William Strong)이 피셔에게 신율법주의자들과 도덕률 폐기론자들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니 1646년에 그의 저서 『근대신학의

1954), 148-49; Dixhoor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tor Twisse’, 406, 406 n.48: 당시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도덕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죄와 국가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총회의 국회의 금식을 비판했다. “The antinomian authors expressly undermine, though in different degree, the moral law of God in all parts thereof, & discourage good Christians from humiliation for sin in these sad times wherein God calls us to that duty above all other: the antinomian preachers allegedly refused to pray about their own sins or the sins of the nation: instead, they preached against the assembly’s and Parliament’s national fasts.”

26 여기서 두 그룹이라고 하면, 한 쪽은 도덕률 폐기론(Antinomianism)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신율법주의(Neonomianism)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2.

27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83; 뷰캐넌은 이 논쟁을 ‘신율법주의 논쟁’이라고 칭하였다. Como, *Blown by the Spirit*, 3, 8: 도덕률 폐기론자들과 신율법주의자들은 모두 이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지적인 유산들을 남겼던 경건한 청교도들이었다. “Antinomians were counted so perilous because in many ways they were members of the godly community, sharing large portions of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heritage that defined puritans as a group within the world.”

정수』를 두 번째로 출판할 때는 이튼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제거하라고 권했다.²⁸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근대신학의 정수』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그 저자에 대해 조금 더 알면, 그의 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대신학의 정수』의 저자는 ‘E. F. 라는 약자로 표시된’ 무명인에 의해 쓰였다.²⁹ 데이빗 메킨타이어(David McIntyre)는 잉글랜드의 한 장로 교회의 회원이었고 이발사 협회의 회원이었던 에드워드 피셔가 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³⁰ 존제이 머레이(John J Murray)도 메킨타이어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드워드 피셔를 옥스포드 대학의 브레이지노스 컬리지의 회원이었던 신사로 여겼던 안쏘니 우드의 연구로 인해 혼동이 빚어졌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피셔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리처드 박스터(1615-1691)는 피셔를 정직한 이발사 ‘미스터 피셔(Mr. Fisher)’로 언급하였다.”³¹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신학의 정수』의 서문(Preface)에 해당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독자들에게”라는 부분에서, 피셔는 자신도 한 때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율법주의자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³² 그러나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는 피셔가 다른 아닌 “교만한 바리새인”임을 일깨워 주었고, 그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다.³³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 피셔는 율법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율법주의자”를 정의하면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움에 대해

2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5.

29 Como, *Blown by the Spirit*, 1.

30 David Martin McIntyre, ‘First Strictures o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Evangelical Quarterly*, 10.1 (1938); Como, *Blown by the Spirit*, 2; 코모는 에드워드 피셔의 삶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정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인해 무정부주의와 실정,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살았다.’

31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42.

32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1.

33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1.

무지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열심있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하였다.³⁴ 그리고 피셔는 “값없는 복음의 은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도덕을 폐기론으로 편향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교도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셔가 도덕을 폐기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데이빗 코모는 피셔가 도덕을 폐기론자로 알려진 인물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고, 신자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초기의 도덕을 폐기론자들의 의견과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셔의 『근대신학의 정수』의 두 번째 파트에 기록된 십계명 강해를 읽어보면 그가 도덕을 폐기론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³⁶ 마크 존스도 1720년에 피셔의 책이 도덕을 폐기론을 표방한 것으로 정죄되기는 했지만 피셔가 도덕을 폐기론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³⁷

그의 서문을 보면 피셔 자신도 도덕을 폐기론을 거부했음을 증명한다. 그는 도덕을 폐기론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은 “복음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머리로 아는 개념적인 지식이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는 못한 사람들이다.”³⁸ 또한 그들은 “신자들처럼 말하지만, 신자들처럼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성인들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악마와 같이 행동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³⁹ 이와 같이 피셔는 율법주의와 도덕을 폐기론을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오류들이라고 비판하였고 그의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피셔는 그 두 개의 길 사이로 중간길을 가기를 원했다.⁴⁰

34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1.

35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4; Dixhoor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tor Twisse’, 415; 반 디슨은 피셔를 ‘a author well connected to the antinomian underground’라고 표현하였다.

36 Como, *Blown by the Spirit*, 6;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69-337.

37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324.

3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2.

39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2.

40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42.

3. 토머스 보스턴과 마로우 논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토머스 보스턴은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시민전쟁(English Civil War)에 참전했던 퇴역군인을 심방했다가 선반에 놓인 『근대 신학의 정수』를 발견하고 그 책을 소유주로부터 사서 읽고서 자신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그 책이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러한 요지에 근접한 것이며...내가 이전에는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율법과 복음) 사이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그 안에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때마다 비춰주시는 빛과 같은 기쁨을 누렸다.⁴¹

이로써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종결된 후 약 60년 만에 도덕률 폐기론 논쟁은 스코틀랜드로 옮겨졌다. “마로우 논쟁(The Marrow Controversy)”이라고 불리는 이 논쟁을 뷰캐넌은 “한편에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편에는 신율법주의자들을 상대로 일어났던 항의(protest)”였다고 진단한다.⁴²

1662년에 있었던 대 추방령으로 인해 약 400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사임해야 했고 추방당했다.⁴³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수를 넘어섰고, 장로교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야 했다.⁴⁴ 머레이는 이 시기에 신율법주의가 성행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만약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의 대다수가 신율법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두드러졌다.”⁴⁵

41 VanDoodewaard, 31; Thomas Boston, *Memoirs of the Life, Time and Writings of Thomas Boston of Ettrick* (Glasgow: John M'neilage, 1899), 160; “I found it to come close to the points I was in quest of; and to shew the consistency of these, which I could not reconcile before: so that I rejoiced in it, as a light which the Lord had seasonably struck up to me in my darkness.”

42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82.

43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34.

44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34.

45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35.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목회와 설교의 분위기의 한 가지 예로 1717년에 “옥테라도 (Auchterarder)”라는 지역의 노회에서 고수하고 있던 신앙 고백이 정죄를 당하였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옥테라도 신앙고백 (Auchterarder Creed)”이 스코틀랜드 총회에 의해 정죄를 당했을 때, 보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⁴⁶

이런 상황에서 보스틴이 『근대신학의 정수』를 발견한 것이었다. 1718년에 보스틴의 동료 목회자였던 제임스 호그(James Hog)는 자신의 서문과 함께 그 책을 다시 출판하였다.⁴⁷ 『근대 신학의 정수』의 첫 번째 파트는 1645년에 출판되었고 두 번째 파트는 1649년에 출판되었다.⁴⁸ 출판된 책의 저자는 성경적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전도자 (Evangelista)와 새신자 (Neophytus), 율법주의자 (Nomista)와 도덕률 폐기론자 (Antinomista)의 입장을 대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⁴⁹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새신자가 도덕률 폐기론자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입장에 대해 듣고 마음이 어려워져 상담을 요청하고, 복음 전도자가 행위의 법(행위 언약)과 믿음의 법(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법(십계명)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⁵⁰ 두 번째 파트는 십계명이 신자의 삶의 규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율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46 Boston, *Memoirs of the Life, Time and Writings of Thomas Boston of Ettrick*, 302-03; 옥테라도 신앙고백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not sound and orthodox to teach that we must forsake sin in order to our coming to Christ and instating us in a covenant with God.”

47 Boston, *Memoirs of the Life, Time and Writings of Thomas Boston of Ettrick*, 331.

4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1, 27.

49 Edward Fisher, 『토마스 보스틴과 함께 읽는 개혁 신앙의 정수』, 황준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0: 번역 본에서는 ‘Evangelista’를 ‘김복음 목사’로, ‘Nomista’를 ‘이율법’으로, ‘Antinomista’를 ‘최반율’로, ‘Neophytus’를 ‘박새신’으로 한국식 이름으로 성을 붙여서 표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복음전도자(Evangelista)’, ‘율법주의자(Nomista)’, ‘반율법주의자(Antinomista)’, ‘새신자(Neophytus)’라고 표기할 것이다.

50 John J.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The Westminster Conference 1984: Preaching and Revival* (Tentmaker Publications, 1984), 43.

보스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책이었지만 하이퍼 칼빈주의와 신율법주의적인 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던 총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제임스 하도우(James Hadow)와 토마스 블랙웰(Thomas Blackwell)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반대를 당하였고, 결국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 의해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정죄를 당하였다. 총회는 1720년 5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와 책 혹은 소책자를 통해서 『근대신학의 정수』를 읽어보기를 추천하거나 그 책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책을 읽지 말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경고해야 한다.⁵¹

총회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오류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근대신학의 정수』를 정죄했다.

1. 믿음의 성격에 관해서서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2. 보편구원론을 믿는다. 3. 거룩이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4.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상급을 받을 소망이 신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5. 신자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⁵²

“마로우 형제들 (Marrow Brethren)”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보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총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총회와 마로우 형제들 사이의 논쟁은

51 *The Principal Act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Convened at Edinburgh, the 12th Day of May, 1720* (Edinburgh: The Successors of Andrew Anderson, 1720), 12: 총회의 회의록의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d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do hereby strictly prohibit and discharge all the Ministers of this Church, either by Preaching, Writing or Printing, to recommend the said Book, or in Discourse to say any Thing in Favours of it: But on the contrary, they are hereby enjoined and required to Warn and Exhort their People, in whole Hands the said Book is, or may come, not to read or use the same.”

52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45.

1723년까지 계속되었다. 뷰캐넌은 이 논쟁의 핵심적인 이유를 『근대신학의 정수』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한쪽에서는 그 책이 도덕률 폐기론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두 그룹 모두 도덕률 폐기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⁵³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근대신학의 정수』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17세기에 잉글랜드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18세기에 확연하게 다른 교회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17세기 중반과 18세기 초반에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특별히 마로우 논쟁에서 화두가 되었던 “구원의 확신” 교리가 『근대신학의 정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교리들 중에 하나인 구원의 확신 교리에 관하여 마로우 논쟁에서 “율법과 복음의 바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대해서 총회와 마로우 형제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는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마로우 형제들을 정죄하였고, 마로우 형제들은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호소하여 『근대신학의 정수』가 이단적인 책이 아님을 대변하였고, 자신들의 입장이 도덕률 폐기론이 아님을 변호하였다. 양 측에서 어떻게 신앙고백서를 해석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III. 구원의 확신 교리

믿음의 확신은 신자가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설득되어 지거나 굳은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은 신자가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지식을 말한다.⁵⁴

⁵³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83.

확신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 혹은 믿음의 객관적인 확신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며,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한다.⁵⁵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의 간접적인 행위 혹은 믿음의 주관적인 확신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신념의 상태에 이르러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⁵⁶ 주관적인 믿음의 확신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신자가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라고 느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⁷ 하지만 객관적인 믿음의 확신은 신자가 “나는 그분을 나의 것으로 취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⁸ 이 두 가지 믿음의 확신의 구분은 에드워드 피셔에 의해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사용되었고, 토머스 보스턴도 ‘마로우 논쟁’ 중에 이 개념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1. 『근대 신학의 정수』와 마로우 논쟁에서의 확신 교리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첫 번째 파트의 2장 3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새신자와 반율법주의자와 함께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부분이 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 전도자에게 어떻게 신자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느냐고 묻는다. 복음 전도자는 로마서 7장 1-6절에 근거하여 바울 사도가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던 비유를 사용한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바울 사도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율법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는데 전자가 후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54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4), ii, 264.

55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96), 507.

56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7;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369; 마로우 형제들은 주관적인 확신은 ‘묵상과 영적인 상고 혹은 내적인 감정에 의해 믿음의 증거요, 표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57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370.

5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370.

터 자유를 얻게 된다.⁵⁹ 이러한 이유로 사람 입장에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나 율법이 없는 것이다. 이어서 복음 전도자는 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믿으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든지 그것은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⁶⁰

스코틀랜드 총회의 1720년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회는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언급된 ‘구원받는 믿음(saving faith)’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내용(사 1:10; 롬 8:16; 요일 5:13)과 다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8장 1, 3, 4절)와 대교리 문답(81문, 172문)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⁶¹ 왜냐하면 신앙고백서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essence)에 속하지 않는다 (18.3)”고 가르치고 있으나 『근대신학의 정수』에서는 반대로 주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로우 형제들은 총회의 정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토머스 보스톤은 “마음으로부터 확신하십시오(Be verily persuaded in your heart)”라는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단순한 진리라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다.”⁶² 보스톤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금 한덩어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이것은 이제 당신 것입니

59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0–31.

60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2.

61 *The Principal Act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Convened at Edinburgh, the 12th Day of May, 1720* (Edinburgh: The Successors of Andrew Anderson, 1720), 9: 총회는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것이고,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것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고 믿는다. 이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62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6.

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금덩이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 효과를 경험하게 한다.”⁶³ 이와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의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또 다른 구절, “그러면 그 분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you shall have live and salvation by him)”에 대해서 보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믿는 만큼 확신하게 된다.”⁶⁴ 보스틴의 말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1722년의 스코틀랜드 총회의 회의록에서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에 따라서 (마로우 형제들은)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한 신자라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⁶⁵

마로우 논쟁의 초기에 『근대신학의 정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저서라고 내세우던 마로우 형제들과 스코틀랜드 총회 사이에서 논쟁하던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근대신학의 정수』의 저자가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로우 형제들 중 한 사람이었던 제임스 호그(James Hog)는 에드워드 피셔가 그의 저서에서 믿음을 정의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셔는 새신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구하라”고 권면한 것뿐이라고 말했다.⁶⁶ 호그는 보스틴이 인용했던 위의 문장들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는

63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6.

64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7.

65 *The Principal Act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Convened at Edinburgh, the 10th Day of May, 1722* (Edinburgh: The Successors of Andrew Anderson, 1722), 20-21.

66 제임스 호그의 저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s obvious to Remark hereupon, that our Author intended not to give a Definition of Faith in these Words, tho’ yet our Reformers generally defined it by Assurance.” James Hog, *An Explication of Passages Excepted Against i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Taken from the Book Itself: Contained in a Letter to a Minister of the Gospel* (Edinburgh: Robert Brown and sold by John Macky, 1719), 14.

믿음에 포함된다고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의 일원이자 세인트 메리 칼리지(St Mary's College, University of St Andrews)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하도우(James Hadow)는 피셔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렸다고 답했다. 하도우는 피셔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로 여겼다고 말하며, 그런 생각은 보편구원론과 도덕률 폐기론을 함의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⁶⁷

사실, 제임스 호그가 『근대신학의 정수』의 저자가 구원받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의 실수였다. 그리고 마로우 형제들은 *Queries... with the Answer*라는 저서에서 에드워드 피셔가 믿음이 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고 인정했다.⁶⁸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복음 전도자의 의심에 가득찬 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믿으라고 권면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새신자님,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보니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군요. 어떤 일을 자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⁶⁹

복음 전도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에게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바울 사도의 말을 사용해서 복음 전도자는 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으로부터 생명

67 하도우의 저서의 원문에 따르면, 그는 “Here it is plain, that this Author speaks of that Faith, whereby a sinner hath Interest in Christ and is entered into the Covenant of Grace... For a Foundation of this Faith or firm Persuasion, he supposeth some kind of universal Redemption, and thereupon a Gift and Promise of eternal Life to Mankind.”라고 기록하였다. James Hadow, *The Record of God and Duty of Faith Therein Required* (Edinburgh: John Mosman and Company for John Paton, 1719), 25-26.

6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362.

69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2.

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⁷⁰ 이것은 에드워드 피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긴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믿음이 확신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피셔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증거는 『근대신학의 정수』의 첫 번째 파트, 2장 3절 3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총회와 마로우 형제들은 3절 3항에서 새신자가 거듭난 신자였는지 불신자였는지에 대한 토론을 했다. 제임스 호그는 새신자가 의심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거듭난 신자였다고 주장했다. 호그는 복음 전도자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확실해도 좋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다.⁷¹ 그러나, 제임스 하도우는 그 시점에 새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그에게 확신을 포함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권면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 전도자가 새신자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의심들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⁷² 사실, 『근대신학의 정수』의 첫 번째 파트, 2장 3.5절에서 새신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비록 저는 두렵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⁷³ 새신자의 고백에 복음 전도자는 대답한다. “이제 당신은 은혜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⁷⁴

데이빗 라크만(David Lachman)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하도우의 편을 든다. 라크만은 이 시점에서 에드워드 피셔는 “그가 의도했던 신학적인 포인트를 네러티브의 흐름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⁷⁵ 라크만은 새신자가 이 시점에는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구원

⁷⁰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32.

⁷¹ David C. Lachman, *The Marrow Controversy, 1718-1723: An Historical and Theological Analysis* (Edinburgh: Rutherford House, 1988), 209.

⁷² Lachman, *The Marrow Controversy, 1718-1723*, 220.

⁷³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65.

⁷⁴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68.

⁷⁵ Lachman, *The Marrow Controversy, 1718-1723*, 220.

얻는 믿음을 권면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2장 3절 3행에서 새신자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마로우 형제들이 주장했던 구원의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부가적인 은혜의 요소인지 판단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총회는 전자를 에드워드 피셔와 마로우 형제들의 입장이라고 여겼고, 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총회는 전자가 정통적인 입장이 아니고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정죄했다. 하지만 보스턴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마로우 형제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면, 신앙고백서의 14장 3절은 다음과 같다.

이 믿음은 정도에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자(the Author)요 완성자(finisher)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⁷⁶

보스턴은 만약 구원의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믿음이 “온전한 확신(a full assurance)”으로 자라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⁷⁷ 즉, 확신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믿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신앙고백서와 대치되는 생각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서 18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

76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시흥: 도서출판 지민, 2016), 139-40; Joel R. Beeke and Sinclair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9), 95: “This faith is different in degrees, weak or strong: may be often and many ways assailed, and weakened, but gets the victory: growing up in many to the attainment of a full assurance, through Christ, who is both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WCF 14.3)”

77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43.

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확신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절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생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⁷⁸ 이 구절에 대해서 마크 존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의 인격(person)을 사랑하는 것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⁹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도덕률 폐기론을 경계했던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마다 은혜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고 즉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고 말했다.⁸⁰ 여기서 굿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person)을 참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18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구원의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78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1;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such as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love Him in sincerity, endeavouring to walk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Him, may, in this life, be certainly assured that they are in the state of grace.”

79 Mark Jones, *Antinomianism: Reformed Theology's Unwelcome Guest?*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2013), 102.

80 Thomas Goodwin, *The Works of Thomas Goodwin, D.D.* (Edinburgh: James Nichol, 1862), iv, 4; 원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Whensoever we would go down into our own hearts, and take a view of our graces, let us be sure first to look wholly out of ourselves unto Christ, as our justification, and close with [him] immediately.”

오히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라고 기술하고 있다.⁸¹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내적인 증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존스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실용적인 삼단논법(practical syllogism)”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대전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소전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결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⁸²

이러한 삼단논법은 신앙고백서 16장 2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행들은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것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화한다.”⁸³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게 되고, 이러한 증거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된다는 뜻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실용적인 삼단논법과 함께 “신비로운 삼단논법(mystical syllogism)”을 아래와 같이 담고 있다.

대전제: 성경에 따르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신자만이 내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성령의 확증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경건을 경험한다.

소전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경건을 경험하였음을

81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2;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This certainty is not a bare conjectural and probable persuasion grounded upon a fallible hope; but an infallible assurance of faith founded upon the divine truth of the promises of salvation, the inward evidence of those graces unto which these promises are made.”

82 Jones, *Antinomianism*, 103.

83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53;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15: “These good works, done in obedience to God’s commandments, are the fruits and evidences of a true and lively faith: and by them believers manifest their thankfulness, strengthen their assurance.”

부인할 수 없다.

결론: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⁸⁴

이러한 삼단논법은 신앙고백서 18장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이다. 즉, 구원의 확신은 그분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확실성은…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는 양자의 영(the Spirit of adoption)의 증거이다.”⁸⁵ 즉, “실용적인 삼단논법”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객관적인 믿음의 확신), “신비적인 삼단논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주관적인 믿음의 확신).⁸⁶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의 확신과 주관적인 믿음의 확신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입장이 종교개혁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대신학의 정수』의 저자와 보스턴의 마로우 논쟁에서는 신앙고백서의 객관적, 주관적 믿음의 확신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3. 종교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입장 차이(gap)”

마로우 형제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먼저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믿음이 우리의 지성에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assensus*)”라고 여겼기 때문

⁸⁴ Jones, *Antinomianism*, 104; 존스는 실용적인 삼단논법(practical syllogism)과 신비적인 삼단논법(mystical syllogism)을 조엘 비키의 ‘The Assurance Debate: Six Key Questions’ 으로부터 인용하였다. Joel R Beeke, ‘The Assurance Debate: Six Key Questions’,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ed.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63-83.

⁸⁵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2;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⁸⁶ Jones, *Antinomianism*, 104; “Christ is not only for us (i.e., objective), but also in us, the hope of glory (i.e., subjective).”

이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 “확신(*fiducia*)”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⁸⁷ 즉, 로마 카톨릭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믿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⁸⁸ 예를 들면, 칼빈은 아래와 같이 믿음을 정의하였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firmam certamque cognitionem*)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⁸⁹

칼빈의 믿음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칼빈은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초자연적인 선하심 (*divinae benevolentiae*)”이라고 믿고 있다.⁹⁰ 두 번째로, 믿음은 특별 계시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promissionis veritate*)”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¹ 폴 헬름은 칼빈이 믿고 있던 바와 같이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고 이러한 확신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87 Donald Beato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and the Marrow Controversy’, 4.3 (1906), 327.

88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7.

8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2: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Peabody, Mass.: Hendrickson, 2008), 360: “We shall now have a full definition of faith if we say that it is a firm and sure knowledge of the divine favour toward us, founded on the truth of a free promise in Christ, and revealed to our minds, and sealed o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In Latin, “Nunc iusta fidei definitio nobis constabit si dicamus esse divinae erga nos benevolentiae firmam certamque cognitionem, quae gratuita in Christo promissionis veritate fundata, per Spiritum sanctum & revelatur mentibus nostris & cordibus obsignatur (*Institutio* 3.2.7).”

90 *Institutio* 3.2.7; Paul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8), 23.

91 *Institutio* 3.2.7;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23.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² 다시 말하면, 믿음이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지적한다.

바울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를 가르친다.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것에 대한 큰 확신(magnae securitatis fructum)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⁹³

칼빈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있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믿음(fide)이라는 말은 종종 확신(fiducia)과 동등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⁹⁴ 칼빈이 확신을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종교 개혁자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신앙고백서 18장에는 아래와 같은 고백이 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며, 참된 신자라도 그가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며, 많은 어려움으로 더불어 싸워야 할 수도 있다.⁹⁵

⁹²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24.

⁹³ 칼빈, 『기독교 강요』, 2: 40; Calvin, *Institutes*, 366: “Thus he uniformly intimates throughout his writings, that the goodness of God is not properly comprehended when security does not follow as its fruit.” In Latin, “Et ubique sic docet, vt inuatu non bene aliter Dei bonitatem a nobis comprehendi nisi magnae securitatis fructum inde colligamus (*Institutio* 3.2.16).” 참고로, “magnae fructum securitatis”을 “큰 확신의 열매”로 번역할 수 있다.

⁹⁴ “Quibus sane verbis ostendit, non esse rectam fidem, nisi quum tranquillis animis audemus nos in conspectum Dei sistere. Quae audacia nonnisi ex divinae benevolentiae salutisque certa fiducia nascitur. Quod adeo verum est ut saepiuscule pro fiducia nomen fidei usurpetur (*Institutio*, 3.2.15).”

⁹⁵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3;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This infallible assurance does not so belong to the essence of

신앙고백서에서는 “틀림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칼빈의 입장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총회원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음을 지적한다.⁹⁶ 신앙고백서 14장 2절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를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은혜언약의 덕성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서만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⁹⁷ 퍼거슨이 언급했듯이, 필자도 신앙고백서의 믿음에 관한 14장에서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요소에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삶의 여러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성품과 고난 가운데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⁹⁸

칼빈도 신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확실히 우리는 한편으로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의심의

faith, but that a true believer may wait long, and conflict with many difficulties, before he be partaker of it. (WCF 18.3)”

96 Sinclair B. Ferguson, *The Whole Christ: Legalism, Antinomianism, and Gospel Assurance: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6), 186.

97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38;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95; “The principal acts of saving faith are accepting, receiving, and resting upon Christ alone fo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eternal life, by virtue of the covenant of grace. (WCF 14.2).”

98 Ferguson, *The Whole Christ*, 186: ‘Patently what the Divines go on to say four chapters later is that such faith does not exist in a vacuum. It is faith in Christ set within the context of the psychology, life situation, personality, complexes, opposition, difficulties, and damage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individual’s *sitz im Leben*.’

기미가 없는 확신이나 불안의 습격을 받지 않는 확신을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운다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 동요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⁹⁹

커닝햄은 위에서 언급한 칼빈의 말이 칼빈 자신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입장과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덧붙여서, “칼빈은 한번도 이처럼 자신의 의견에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입장과 신자에게 존재할 수 있는 의심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¹⁰⁰ 하지만 헬름은 위에 언급된 칼빈의 문단을 “칼빈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확신이 없는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신을 동반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구해야 한다”고 해석한다.¹⁰¹ 흥미롭게도,

99 칼빈, 『기독교 강요』, 2: 40; Calvin, *Institutes*, 366; “Nos certe, dum fidem docemus esse debere certam ac securam, non certitudinem aliquam imaginamur quae nulla tangatur dubitatione, nec securitate quae nulla sollicitudine impetatur: quin potius dicimus perpetuum esse fidelibus certamen cum sua ipsorum diffidentia. (*Institutes* 3.2.17).”; 또한 칼빈은 마태복음 8장 25절을 주석하며 의심이나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Fear, in the ordinary sense, is not opposed to faith. This is obvious, for if we fear nothing, the idle apathy of the flesh is creeping in, then faith languishes, the mood for prayer turns drowsy, and at last the very thought of God is extinguished... we must be sure that nervousness is not a proof of a failure in faith, but only such anxiety as disturbs the peace of our conscience, and stops it from resting upon the promise of God.” Joh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T. H. L. Park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1:281.

100 Cunningham, *The Reformers*, 120; “Calvin never contradicted himself so plainly and palpably as this. But in immediate connection with the definition above given from him of saving faith, he has made statements,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 of mind that may exist in believers, which cannot well be reconciled with the formal definition.”

101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26; 헬름은 본문에서 칼빈이 믿음의 정의를 언급했기 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Calvin’s definition of faith is not a report of how the word “faith” is actually used, either by himself or by others, but it is a recommendation about how his readers ought habitually and properly to think of faith.”

퍼거슨은 커닝햄도 위와 동일한 자신의 저서 *The Reformers*에서 칼빈의 말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그가 믿음을 정의한 본문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한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커닝햄이 칼빈의 입장의 일관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⁰² 커닝햄이 칼빈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칼빈도 신자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피셔와 마로우 형제들은 일관성 있는 칼빈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비튼(Donlad Beaton)은 여전히 마로우 형제들과 피셔가 믿고 있던 구원의 확신의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직접적인 행동”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³ 마로우 형제들은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포함되지 않는 온전한 확신을 “믿음의 주관적인 확신(subjective assurance of faith)”이라고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확신을 “믿음의 객관적인 확신(objective assurance of faith)”이라고 구별했다. 필자는 피셔와 마로우 형제들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존 머레이가 지적했듯이, 믿음의 주관적인 확신과 믿음의 객관적인 확신을 구별한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로부터 언제나 시간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확신은 객관적인 확신에 이어서 곧바로 생길 수 있고, 즉시 신자의 양심에

¹⁰² Ferguson, *The Whole Christ*, 187 n.26.

¹⁰³ Beato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and the Marrow Controversy’, 3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신(infallible assurance)”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 전에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싸워야 할 수도 있다(but that a true believer may wait long, and conflict with many difficulties, before he be partaker of it)”고 말한다. See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⁴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사실 두 개의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처럼, 칼빈과 피셔, 보스턴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확신이라는 경험은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¹⁰⁵ 그 이유는, 퍼저슨이 언급했듯이, 온전한 확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⁰⁶

4. 도덕률 폐기론과 신율법주의의 “중간 길(via media)”

한편, 『근대신학의 정수』를 둘러싼 마로우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율법주의의 오류가 18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마로우 형제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정죄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입장이라고 평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벌코프가 지적했듯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기보다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⁰⁷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확신에서 찾고자 했다. 에드워드 피셔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이런 오류들을 지적한다. 『근대신학의 정수』의 3장 4절에서 복음 전도자는 반율법주의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만약 당신이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십계명을 쓸모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¹⁰⁴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265.

¹⁰⁵ Ferguson, *The Whole Christ*, 194.

¹⁰⁶ Ferguson, *The Whole Christ*, 194.

¹⁰⁷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8.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¹⁰⁸

복음 전도자는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며 반율법주의자의 오류를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 없이 증거만을 찾아 다닌다면, 그리고 그의 믿음의 뿌리요,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은사나 의무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는다면, 그는 사실상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¹⁰⁹

반율법주의자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에 관한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만을 구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권면한 것이다.¹¹⁰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까지도 변화시킨다. 즉,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칭의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원리이다.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마크 존스는 17세기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신학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체로, 그 당시 도덕률 폐기론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신자들이 그들의 성화된 정도를 증거로 그들의 칭의를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¹¹¹

10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00; ‘Wherefore, friend Antinomista, if either you, or any man else, shall, under a pretence of your being in Christ, exempt yourselves from being under the law of the ten commands, as they are the law of Christ, I tell you truly, it is a shrewd sign you are not yet in Christ.’

109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01; ‘if any man pitch upon the sign, without the thing signified by the sign [Namely, Christ in the heart.], that is, if he pitch upon his graces (or gifts rather) and duties, and conclude assurance from them, as they are in him, and come from him, without having reference to Jesus Christ, as the root and fountain of them; then are they deceitful marks and signs.’

110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04.

111 Jones, *Antinomianism*, 98; ‘By and large, the antinomian theologians rejected the idea that believers may be assured of their justification by the evidence of their sanctifications.’

복음 전도자는 반율법주의자를 돕기 위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사슬”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그 마음의 변화된 상태에서 흘러나오고, 그 마음의 상태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서 흘러나오고, 그 은혜는 칭의에서 흘러나오며, 칭의는 믿음에서 흘러나오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서 흘러나온다” 사슬과 같이 연결된 믿음과 확신의 관계를 말한다.¹¹² 동시에, 복음 전도자는 반율법주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나 표징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피셔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절의 내용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신자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비범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방편을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¹¹³

반면에 제임스 하도우는 표징이나 외적 증거로부터 오는 확신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라고 여겼다.¹¹⁴ 이런 입장은 당시의 “신율법주의(Neonomianism)”라고 불리던 신학적 입장과 흡사했다. 신율법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리처드 박스터는 그의 저서 *Aphorisms of Justification*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적인 의로움(legal righteousness)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의로움(evangelical righteousness)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자는 복음의 조건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¹¹⁵ 벌코프는 신율법주의의 신학적 특징을

112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01; “when he looks upon his out ward actions as flowing from the inward actions of his mind, and upon the inward actions of the mind as flowing from the habits of grace within him, and upon the habits of grace within him as flowing from his justification, and upon his justification as flowing from his faith, and upon his faith as given by and embracing Jesus Christ.”

113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3;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7, 129; “Being enabled by the Spirit to know the things which are freely given him of God, he may, without extraordinary revelation, in the right use of ordinary means, attain thereunto.”

114 Lachman, *The Marrow Controversy, 1718-1723*, 373.

115 Thomas F. Torrance, *Scottish Theology: From John Knox to John McLeod Campbell* (Edinburgh: T. & T. Clark, 1996), 219; [Baxter] held that although Christ has

이렇게 정리했다. “확신은 믿음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좋은 믿음의 상태에만 속한다. 그런 믿음의 상태는 특별한 계시나 계속적인 양심의 점검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¹¹⁶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참된 신앙 생활의 표징을 성경으로부터 찾지 않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자기 점검의 기준” 으로부터 찾는 것이다.¹¹⁷ 총회 입장에서 마로우 형제들을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라고 정죄했던 제임스 하도우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강조하며 구원의 확신을 자기 점검을 통한 외적 증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근대신학의 정수』의 첫 번째 파트, 3장 13절을 보면, 새신자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신자가 복음 전도자에게 어떻게 그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질문할 때,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미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으니 거기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증된 진리이고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¹¹⁸

복음 전도자는 새신자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의지할 때, 그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나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¹¹⁹ 여기서

sufficiently satisfied the Law, in respect of “legal righteousness”, yet in respect of “evangelical righteousness”, the believer must still perform the conditions of the Gospel, although admittedly he cannot do that without grace.’; Richard Baxter, *An Extract of Mr. Richard Baxter’s Aphorisms of Justification*, ed. John Wesley (London: John Gooding for R. Akenhead and T. Trye, 1745), 19; ‘It is far from being an Error to affirm, that Faith itself is our Righteousness, that it is a Truth necessary for every Christian to know; that is, Faith is our evangelical Righteousness, (in the Sense before explained) as Christ is our legal Righteousness.’

116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8.

11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8.

118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43.

에드워드 피셔는 다시 한번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direct act of faith)를 믿음의 간접적인 행위(reflex act of faith)로부터 구별지어 언급한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새신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확신의 기초를 두려고 하고 있군요.”¹²⁰ 다시 말하면, 새신자는 간접적인 믿음의 행위, 즉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그에게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 즉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를 먼저 가지라고 권면한다.¹²¹ 새신자가 자신에게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노라고 대답하자, 복음 전도자는 “은혜 언약에서 행위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한다.¹²² 율법주의로 인한 믿음으로부터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새신자에게 권면한 것이다.

물론, 신앙고백서 18장 3절에서도 “각 신자는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의 심령은 부유해 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이 확신의 정상적인 열매인 순종의 의무를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그렇게 된다”고 기록했다.¹²³ 웨스트민스터 총대들도 신자의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로우 형제들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호그가 지적했듯이, 만약 (신율법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의 기준에 이르는 경건을 점검하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죽는 순간

119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43.

120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43; “it seems you do not want a ground for your believing, but for your believing that you have believed.”

121 Jones, *Antinomianism*, 104, 127; 마크 존스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가 상위에 있고, 믿음의 간접적인 행위는 전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두 개의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122 F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244-45.

123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173-74; Beeke and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129; “And therefore it is the duty of every one to give all diligence to make his calling and election sure, that thereby his heart may be enlarged in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in love and thankfulness to God, and in strength and cheerfulness in the duties of obedience, the proper fruits of this assurance.”

에도 믿음의 확신 없이 죽고 말 것이다.¹²⁴ 신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은 신자들에게 특정한 외적인 경건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보다 오히려 신자들을 증가하는 의심과 혼란과 불확신으로 이끌 수 있다.¹²⁵

IV. 결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의 논쟁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탁월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 중도의 입장을 잘 정리해 놓은 소중한 문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도덕률 폐기론과 신율법주의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았다.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색출해내는 위원회를 조직할 정도로 오류를 타파하려는 총대들의 노력으로 인해, 신앙고백서는 그런 오류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도 입장을 잘 고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었던 피셔의 『근대 신학의 정수』도 그 두가지 역사적 오류들의 중도 노선을 추구하고 그 당시 교회와 목회적인 상황에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적절하게 적용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총대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에드워드 피셔의 『근대 신학의 정수』는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의 중간 입장을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대화체를 사용하여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목회적 조언을 잘 표현하였다. 물론 뷰캐넌이 지적하였듯이, 피셔의 저서는 그 내용을 변증하는 주석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들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²⁶

124 Hog, *An Explication of Passages Excepted Against i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8; "What if he should die before the Casuists saw, or were satisfied with the Reformation of his Life, must he be doomed to die without one Word of Comfort spoken to him."

125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08; "The outcome proved... that this[Nomists'] method was not calculated to produce assurance, but rather tended to lead to ever-increasing doubt, confusion, and uncertainty."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의 『근대 신학의 정수』는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 율법주의로 치우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산성과 알칼리를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¹²⁷ 피셔의 책과 마로우 논쟁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혹은 도덕률 폐기론자들로 억울하게 정죄당한 이들에 의해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피셔와 보스틴이 주장했듯이, 구원 얻는 믿음은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웨스트민스터 18장에서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신자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기록되었지만, 14장의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믿음이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필연적인 요소라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드워드 피셔는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입장을 취하였다. 즉, 구원의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essence)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신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내용을 18세기 초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는 용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머스 보스틴을 비롯한 마로우 형제들이 변호했듯이, 『근대신학의 정수』가 취하는 구원의 확신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거절하지 않는다. 즉, 피셔의 저서는 구원의 확신을 핵심 요소로 담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신자의 구원의 확신의 정도가 강하든지 혹은 약하든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객관적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의 기초석이 된다. 두 가지 개념은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126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83.

127 Murray,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49.

누구든지 객관적인 믿음에서 충만한 확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근대신학의 정수』에서 주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신율법적인 경향은 그들이 외적인 구원의 표징과 끊임없는 자기 점검의 강조를 주장하는 것에 나타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건전한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은혜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으로 바꾸려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과 자신이 택자라고 여겨지는 비범한 계시를 바라는 경향을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근대신학의 정수』는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본질인 구원의 객관적인 확신을 먼저 분명히 갖고 주관적인 확신을 견고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셔의 『근대신학의 정수』는 도덕률 폐기론과 신율법주의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피셔의 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연속성을 이루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담은 문서가 아니고, 오히려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과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 Baxter, Richard. *An Extract of Mr. Richard Baxter's Aphorisms of Justification*. ed. John Wesley. London: John Gooding for R. Akenhead and T. Trye, 1745.
- _____. *Aphorisms of Justification, With Their Explication Annexed Wherein Also Is Opened the Nature of Covenants, Satisfaction, Righteousnesse, Faith, Works, &c.* London: Printed for Francis Tyton, 1649.
- Beaton, Donald.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and the Marrow Controversy', 4 (1906), 317-338.
- Beeke, Joel R. 'The Assurance Debate: Six Key Questions'.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ed. Michael A. G. Haykin and Mark Jo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Beeke, Joel R. and Sinclair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9.
- Beeke, Joel R.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Grand Rapids, Michigan: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96.
- _____.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37.
- Berkouwer, G. C. *Faith and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54.
- Boston, Thomas. *An Illustration of the Doctrin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ith Respect to Faith and Practice, upon the Plan of the Assembly's Shorter Catechism,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Edinburgh: Printed for F. Ogle, 1813.

- _____. *Commentary on the Shorter Catechism*. Edmonton, AB Canada: Still Waters Revival Books, 1993.
- _____. *Memoirs of the Life, Time and Writings of Thomas Boston of Ettrick*. Glasgow: John M'neilage, 1899.
- Buchanan, James.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 Outline of Its History in the Church and of Its Exposition from Scripture*.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4.
- Calvin, Joh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T. H. L. Park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Peabody, Mass.: Hendrickson, 2008.
- Como, David R. *Blown by the Spirit: Puritanism and the Emergence of an Antinomian Underground in Pre-Civil-War Engla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Crisp, Tobias. *Christ Alone Exalted in Fifty-Two Sermons on Several Select Texts of Scripture*. London: Printed for and sold by G. Keith, 1755.
- Cunningham, Willi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7.
- Dabney, Robert Lew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5.
- Dixhoorn, Chad van. 'The Strange Silence of Prolocutor Twisse: Predestination and Politics in the Westminster Assembly's Debate over Justificatio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40 (2009), 395-418.
- Eaton, John. *The Discovery of the Most Dangerous Dead Faith*. London: Printed by J. Hart and by Stephen Dixon at Barton, in Leicestershire, 1747.
- _____. *The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 by Christ Alone*. London: R. B. at the Charge of Robert Lancaster, 1642.

- Ferguson, Sinclair B. *The Whole Christ: Legalism, Antinomianism, and Gospel Assurance: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6.
- Fesko, J. V.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Historical Context and Theological Insight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4.
- Fesko, John V.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 Fisher, Edward.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ed. William VanDoodewaard. Fearn, Tain, Ro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9.
- Goodwin, Thomas. *The Works of Thomas Goodwin, D.D.* Edinburgh: James Nichol, 1862, iv.
- Hadow, James. *The Record of God and Duty of Faith Therein Required*. Edinburgh: John Mosman and Company for John Paton, 1719.
- Helm, Paul. *Calvin and the Calvinist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8.
- Hog, James. *An Explication of Passages Excepted Against i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Taken from the Book Itself: Contained in a Letter to a Minister of the Gospel*. Edinburgh: Robert Brown and sold by John Macky, 1719.
- Jones, Mark. *Antinomianism: Reformed Theology's Unwelcome Guest?*.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2013.
- Lachman, David C. *The Marrow Controversy, 1718-1723: An Historical and Theological Analysis*. Edinburgh: Rutherford House, 1988.
- MacLeod, Donald. *A Faith to Live by: Christian Teaching That Makes a Differenc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1998.

- Macleod, John. *Scottish Theology in Relation to Church History Since the Reformation*. Edinburgh: The Knox Press, 1943.
- McIntyre, David Martin. 'First Strictures o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EQ*, 10 (1938), 61-70.
-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4, ii.
- Murray, John J. 'The Marrow Controversy - Thomas Boston and the Free Offer'. *The Westminster Conference 1984: Preaching and Revival*. Tentmaker Publications, 1984.
- The Principal Act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Convened at Edinburgh, the 10th Day of May, 1722*. Edinburgh: The Successors of Andrew Anderson, 1722.
- The Principal Act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Convened at Edinburgh, the 12th Day of May, 1720*. Edinburgh: The Successors of Andrew Anderson, 1720.
- Torrance, Thomas F. *Scottish Theology: From John Knox to John McLeod Campbell*. Edinburgh: T. & T. Clark, 1996.
- VanDoodewaard, William. *The Marrow Controversy and Seceder Tradition*.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1.
- Warfield, Benjamin Breckinridge.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 Williams, Garry J. 'The Definite Intent of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 in *From Heaven He Came and Sought Her: Definite Atonement in Historical,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Perspective*. ed. David Gibson and Jonathan Gibson.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3.
- 반두데워드, 윌리엄. '토머스 보스턴의 생애와 사역'. 허동원 역. 「진리의 깃발사 매거진」 제156권(2019).
- 보스턴, 토머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해설1』. 장호준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 이정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시흥: 도서출판 지민, 2016.
- 칼빈, 존.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페스코, 존.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윤수신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 피셔, 에드워드. 『토마스 보스턴과 함께 읽는 개혁 신앙의 정수』. 황준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n the
Doctrine of Assurance in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Hyo Ju Kang

(Jinju Hwapyeong Church, Church Histor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is contrary to the Westminster standard concerning the doctrine of assuran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exposes, on the one hand, the Antinomian tendency which inclines to ignore the law of Christ as a rule of life, and on the other hand, the Neonomian defection which confines the freedom of the gospel with such restrictions and conditions as turned into a new law and reduces the comfort and assurance of salvation that believers are warranted to cherish. The author of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does not deny the necessity of the subjective assurance. He believes that the subjective assurance flows from the objective assurance, so the latter needs to be achieved first. Moreover, this article tries to discern whether the teaching of The Marrow differs from Antinomianism, namely, seeking the assurance of marks and signs without embracing Christ in saving faith. Having examined the most controversial doctrine mentioned during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Marrow controversy, it concludes The Marrow serves a useful purpose as a litmus paper that detects the presence of Antinomianism or Legalism concerning the doctrine of assurance and it is not contrary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Key Words: Assurance, Marrow Controversy,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Edward Fisher, Thomas Boston, John Calvin